

내일 일기

김 정 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갑신년 새해가 엇그제 시작된 것 같았는데 훌쩍 한달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 모두들 갑신년 새해를 맞아 인사가 텔레비전 광고의 ‘부자 되세요!’의 패러디로 ‘올해는 건강하십시오!’였다. 그래서 올해에는 건강을 체크하는 한해로 삼기로 했다. 며칠 전 모 방송국에서 방영된 중국 계림의 아름다움을 시청하고 느낀 점은? 웃으며 살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올해는 ‘나의 웃는 얼굴로 남을 즐겁게 하자!’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기로 했다. 즐거운 일들이 벌어질 것도 같은 느낌이다. 일본에서 청색 발광물질 개발자가 2천억 원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로 마스크에서 야단법석이다. 그래서 우리 이공계 출신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돈 (기존의 재벌들 만큼)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나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입장에서, 나의 자식들은 남의 자식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예능 방면에도 끼가 있고, 경쟁에서 매우 우수한 두각을 나타내 주었으면 (겉으로는 무관심 그 자체인척 하면서) 하는 기대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학원에도 보내고 선행 학습도 시키고 있다. 모 교육감이 선행 학습을 한 학생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고(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S대의 총장은 고교 평준화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일단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세계 최고의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농공상의 구시대적 서열 의식이 뿌리 깊게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서열 의식을 한꺼번에 뛰어넘어 권력과 부를 쫓 수 있는 길이 교육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네 학부모님들인데..... 나도 가난한 농군의 자식으로 한양으로 유학하여 소위 일컫는 입신양명한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다. 이는 바로 고교 입시를 거쳐 나름대로 같은 부류의 능력을 가진 친구들과 비록 순위는 매겨져도 능력은 비슷한 친구들끼리 수업을 받았기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학급에서 1등과 꼴찌는 천재와 둔재 정도의 차이가 난다. 물론 학업의 성취도로 인간성을 가르치는 것은 위험천만이지만,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선생님들께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그러니 우수한 학생을 위하여 수업 준비를 할 필요성이 없기에 나태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잘하는 학생은 수업시간에 졸리고, 진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은 어려워져 졸리고, 공교육 현장은 갈팡질팡이다. 이는 대학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니 부자 강남의 학부모는 학원이라도 보내 내 자식 잘 배우도록 하겠다는데..... 미리 공부했으니 별을 받아야 마땅한단다? 강남의 학생들이 서울대학 입학할 경우가 다른 지방 중소도시보다 통계학적으로 16배 정도 높다. 그러니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자식 잘 키우기 위하여 강남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돈은 없지만 공부라도 잘 시켜야 귀족(?)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나라인데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왜? 이를 마다하겠는가? 비록 나는 굶주려도 자식들에게만은 배고픔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지..... 암! 우리 학부모님들은 허영을 물려주어야겠다는 집념의 소유자들인데.....

그런데,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노력하여 대학 졸업시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하고 싶은데 일할 자리가 없다. 셋째 자녀를 낳으면 돈까지 준단다. 인구분포는 역 피라미드 형태가 곧 도래한단다. 자식을 낳으면 즐거움이 아니라 피로움의 구렁텅이로 떨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3번째 자식까지 낳으시란다. 강남으로 이사 가서 세칭 일류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

만원 정도면 충분하단다? 정말로 가관이다. 그러니 나머지도 젊은 부부에게 아끼 가지라고 충고하고 싶지가 않은데... 나라에서는 근시안적 정책으로 릿 서비스가 한창이다. 공단의 3D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CEO님들은 인력난에 허덕이며, 문을 닫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공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경쟁에서 지면 문 닫아야지! 암! 그렇고 말고, 당연한 일인 것을..... 1만불 소득으로 2만불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힘들다고 야단인가? 이제는 일자리 창출없이 2만불 시대로 입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한집 건너 자가용 한대씩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미도라는 영화가 대박 터져 곧 1천만 관객을 돌파할 것이란다. 그런데 몇 년 후면 이러한 훌륭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을까? 이 영화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대박 터질까? 이러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그러려면, 일자리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청년 실업 해결이 국가의 지난한 과제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 젊은이들이 실미도 영화 관람권을 사기 위한 돈은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래서 대박 터질만한 영화 만들어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위 일컫는 3D 업종 관련 2차 산업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모 방송국 토론장에서 정부 고위 관료는 서비스 산업 및 벤처 활성화가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에 마지막 남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고 계신다. 무엇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는 것인가? 이들 산업은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서울공대가 수원 어디쯤으로 이사 가서 산업체와 연관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삼는구나? 우습다 정말! 미국 캘리포니아보다도 적은 면적의 남한 내에서 서울이면 어떻고, 수원이면 어떠냐고 말하겠지만, 수원으로 이사 가면 그나마 지원하려던 우수한 학생 의·치대 한의대로 몰려가게 만드는구나. 내 나이의 사람들 그래도 기득권 가질 정도로 잘살아 왔는데, 내 자식 대의 젊은이들 정말 고생이 심하겠구나! 아니 20년 후 우리의 노년은 정말로 어렵겠구나! 일자리 없어 보험금 지불해 줄 수 있는 젊은이들도 적고, 그나마 태어났던 젊은이 일자리 없어 굶게 생겼으니 말이다. 내가 너무 과장했나? 젊은이들이 내일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 꿈이라도 꾸보아야겠다.